

# 건설업 호황에도 인구는 오히려 감소

## 지역내총생산 성장률 분석 결과

경제성장률 높은 삼척·동해지역  
공사 이후 지역 상경기 다시 침체

화력발전소와 LNG기지가 들어선 삼척시 원덕읍은 요즘 원룸이 경매로 속속 나오고 있다. 2011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공사현장 및 협력업체 직원들을 겨냥해 원룸이 1,000여세대 들어섰지만 화력발전소와 LNG기지 준공 이후에는 80%가 비었다. 공실 발생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문을 닫은 것이다. 삼척시 원덕읍 관계자는

“한때 직원들이 수천명에 달해 음식점이 잘 됐지만 이제는 지역경제도, 인구도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으로 되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처럼 도내 일부 시·군의 건설업 경기 호황이 인구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도내 시·군의 2010~2015년 GRDP성장률과 같은 기간 인구증감률을 동시에 분석한 결과 삼척, 동해지역의 경우 건설업 호황으로 경제성장률은 높았지만 같은 기간 인구는 각각 1.5%, 1.3%씩 감소했다.

경제성장률 격차에 따른 인구증감률 격차 현상도 뚜렷했다. GRDP 경제성장률이 낮았던 하위 9개 시·군의 2010년 대비 2015년

인구 변동 폭을 보면 폐광지역인 태백, 정선이 각각 6.5%, 4.7%씩 감소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이어 속초와 양양이 각각 2.4%, 1.7% 감소해 폐광지 다음으로 큰 감소율을 보였다. 군 지역 중에서는 군부대가 밀집한 접경지를 제외하고 횡성군의 인구가 늘었다. 횡성의 경우 고부가가치 산업인 한우산업 육성으로 축산업 비중이 5%포인트 이상 늘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역의 생산력 확대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정주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농림축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 “정선 알파인스키장 복원 강행땀 재건설 규모의 환경파괴”

구조물 철거 폐기물만 7만톤 달해  
땅 35만톤 파헤치는 등 훼손 불가피

정선 알파인스키장의 복원을 위해서는 경기장을 재건설하는 규모의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도에 따르면 정선 알파인경기장에는 대형암거 364m, 직경 30mm 크기의 제설관 5.4km, 우수관 2.3km, 전기

통신선 27km의 지하매설물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3.5km의 곤돌라를 설치하면서 기초 콘크리트 41개소, 승하차장 기초 10개소 등의 인공구조물이 들어서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원을 강행할 경우 인공구조물 및 지하매설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만 7만여톤에 달하며 지형을 원래대로 복원하기 위해 35만여톤의 땅을 또다시 파헤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리프트와 곤돌라의 경우 재활

용이 불가능해 고철 처리해야 하고 지형을 복원할 경우 경기장 재건설 규모의 공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복원 약속을 이유로 지하구조물 등을 철거할 경우 2차 환경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승기 정선군변영연합회장은 “환경을 살리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올림픽 유산을 파괴하며 또 다른 환경 파괴를 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선=이명우기자 woolee@